

월간복권

LOTTERY MAGAZINE

한장의 복권,

2006 4 희망을 나누는 작은 실천입니다
통권 1호

문화예술 소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엔진 “신나는 예술여행”/
광주 전·남북 지역 박물관·미술관 공동 프로그램 / “강릉시민들이 만든 타일벽화 구경오세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 수기문: 돌보는 사람의 마음자세

세계의 LOTTERY

기획 Special edition

언론속의 LOTTERY

이야기 마당 / 이모 저모 / 혁신 STORY

편집후기·퀴즈

창간사

복권위원회 now

수탁기관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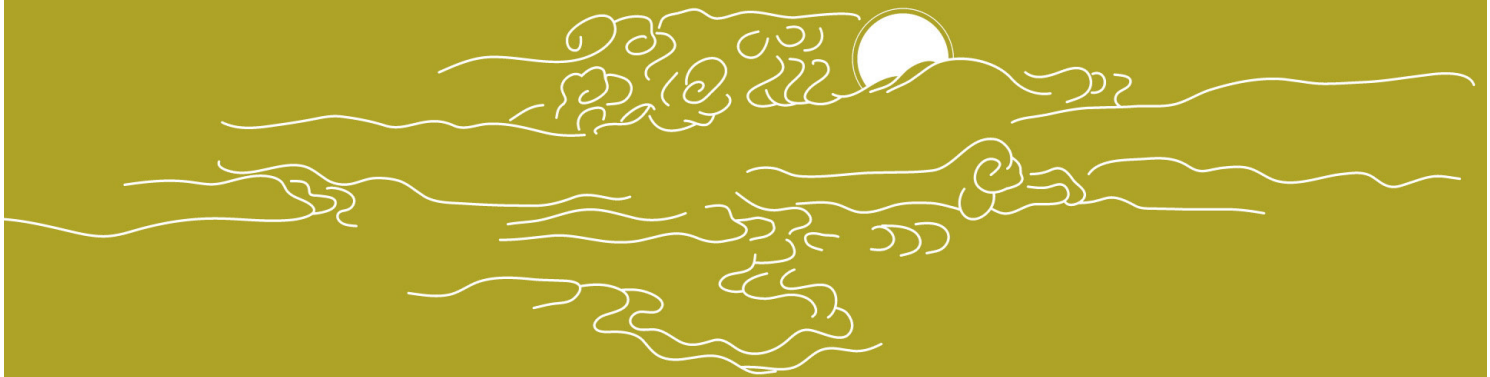
기금사업 now



창간호에 부치는 말

안녕하십니까?

그간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위원회 활동 및 복권기금사업 관련 소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존에 발간했던 뉴스레터를 한 단계 품격을 높이고 내용도 알차게 확대 개편하여 『월간 복권』이란 제호로 매월 발행기로 하였습니다.



복권정책,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외 복권사업 등 복권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권위원회의 기능을 알리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고 받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새 발걸음을 내딛는 『월간 복권』誌에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더욱 발전하는 『월간 복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4. 14.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허신욱

복권위원회 활동상황

「인쇄복권사업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2006. 1. 5(목) 15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5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쇄복권사업 경영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현재 차별성없이 과다·난립한 인쇄복권 상품수를 대폭 축소하고, 10개 수탁사업자간 연합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복권상품(총38종) : 인쇄복권(13종), 전자복권(24종), 온라인복권(1종)
 - 인쇄복권 상품 : 추첨식인쇄복권 4종(주택복권, 슈퍼더블복권, 스포츠복권, 플러스플러스복권), 즉석식인쇄복권 9종(찬스복권, 기술복권, 체육복권, 스피드플러스복권, 관광복권, 자치복권, 복지복권, 기업복권, 녹색복권)
 - 10개 수탁사업자 : 국민은행, 과학기술인공제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제주도, 지방재정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그간 인쇄복권은 차별성없이 과다·난립된 상품들에 대한 구매고객의 외면으로 매출액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권발행·판매관련 경비는 고정화되어 있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인쇄복권의 다각적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금수익율을 제고하고자, 2005년도 하반기부터 인쇄복권 연합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본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4월부터 현행 13종의 인쇄복권 상품을 4종으로 축소하고, 10개 수탁기관이 연합·단일화 하여 복권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 효과를 도모, 인건비 절감과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와 홍보판촉비를 감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 것임
- 이번 경영효율화방안 추진으로 올해 인쇄복권사업비 중 약 8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복권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 참고로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발행·판매 위탁과 관련하여 KLS와 국민은행에 대한 수수료 절감은 2004년 및 2005년에 1차 완료하였고, 전자복권 경영효율화는 '06년 상반기 중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

2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 제정

-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2006. 2. 1일 제16차 복권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지침」을 제정하였다.
- 전국 4만여개의 복권 판매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및복권기금법을 개정(2005. 12. 29), 지도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도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 금번에 제정된 지도단속지침에서는
 - 적발이나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복권법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 위반 우려가 높은 지역(학교나 학원 주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수시점검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여비 지원, 시·도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2007년도 복권기금사업 선정지침 시달

-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2006. 2. 8일 제17차 복권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2007년도 복권기금사업 선정지침」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기금사업부처에 시달하였다.
- 금번 지침은 복권기금의 목적에 최적부합하는 소수의 전략·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복권기금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복권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 부처·기관별로 핵심사업 1개와 기타사업 2~3개의 범위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시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3. 10까지로 함.
 - ※ 핵심사업은 부처별 전체 신청 금액의 70%이상을 투입하는 단위 사업으로써 복권기금의 설치 목적(국민복지증진)에 최적 부합하는 상징성 있는 사업.
- 복권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기금사업의 검토·조정을 진행하고, 6월중 복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로 제출할 예정이다. 🟡

경영효율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

연합복권사업단 출범



출범배경

지금까지 인쇄복권은 10개 수탁사업자가 개별적으로 13종이나 발행함에 따라 과도한 복권발행비용 등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업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복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2006. 1. 5 「인쇄복권사업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동 방안에 따라 2006. 2. 21 연합복권사업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사업단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인쇄복권을 공동으로 발행기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6. 3. 3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옥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조직구성

연합복권사업단은 홍태준 단장을 중심으로 기획총괄팀(팀장 장문봉), 발행관리팀(팀장 서정권), 마케팅팀(팀장 오창규), 회계관리팀(팀장 박정환)등 4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수탁사업자 측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개별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팀별 업무내용을 보면 기획총괄팀은 연간 복권발행계획 수립, 조직 및 인력관리 등 연합복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발행관리팀은 복권상품개발, 복권명칭공모, 복권제조·보관·배송, 추첨행사진행 등 주로 복권의 발행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팀은 시장조사, 판매점 계약 및 관리, 신규 판매처 개발 등 홍보판촉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관리팀은 사업단의 수입·지출업무, 결산업무 등 사업단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팀별 업무가 형식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구매자들에게 새로운 복권을 하루라도 빨리 선보이기 위해 업무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밤늦게까지 합심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전천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계획

연합복권사업단에서는 그동안 13종이나 발행한 인쇄복권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상품수를 즉석식 3종, 추첨식 1종 등 총 4종으로 대폭 축소하여 복권발행비용 및 판매비용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상품은 구매고객의 선호에 따라 복권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차별화하였다.

축소된 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즉석식 상품은 찬스복권 등 기존의 9개 상품을 고액당첨형, 중위당첨형, 하위당첨형 3종으로 축소하면서 판매가격, 당첨확률 등에 차등을 두었고, 추첨식 상품은 주택복권 등 기존 4개 상품을 1개로 통합하되 발행규모는 기존 발행규모보다 감축키로 하였다.

4월 17일 출시예정인 신상품의 특징은 즉석식 복권의 다양한 당첨금 구조 및 당첨확률에 있다.

이번 상품중 가장 특징적인 중위당첨형의 경우 1등 당첨금의 당첨확률은 1/20,000로 기존 복권의 동일 당첨금액과 비교하여 당첨확률이 최고 21~62배가 높아진다. 또한, 2등 20만원, 3등 5만원 등 상품도 당첨확률이 1/1,000, 1/200로 대폭 높아짐에 따라 구매자들이 복권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음으로 고액당첨형 1등 당첨금은 10억원으로 금액이 고액인 점이 특징이며, 하위당첨형 1등 당첨금은 5억원으로 당첨확률이 가장 낮지만 당첨금 500원의 4등 당첨확률은 1/2.9로 평균 3장당 1장이 당첨되는 것이 특징이다.

추첨식의 경우 1등 당첨금이 10억원이나 3매 연속당첨시 최고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상금면에 있어서 현재 로또복권과 좋은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쇄복권의 연합발행으로 올해의 인쇄복권시장 판매는 1,353억원 규모로 당초 1,215억원보다 13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비는 당초 497억원에서 410억원으로 87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홍보판촉비 등 사업운영비가 71억원(경상사무비 등 홍보판촉비 30.4억원, 추첨식 상품축소를 통한 추첨방송비 8.6억원, 연합발행 판매로 인한 인건비 12.3억원, 당첨금지급수수료 19.3억원) 절감되고, 판매수수료 및 발행경비 등 16억원(즉석식 판매수수료를 20%에서 15%로 인하함으로써 2.4억원을 절감하고, 디자인 및 배송업체를 일원화함으로써 13.6억원을 절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번 연합복권사업단 출범으로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그 동안 인쇄복권시장의 난립으로 애로를 겪던 인쇄복권사업자들은 향후 경영여건이 많이 호전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번 연합복권사업단의 출범을 향후 복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02-746-1810

문화소외 지역 **전국 순회사업** 문화예술 소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엔진 “신나는 예술여행”

사립 **박물관 · 미술관** 특별전시프로그램 지원
광주 전 · 남북 지역 박물관 · 미술관 공동 프로그램 _시범지원사업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강릉시민들이 만든 타일벽화 구경오세요”

가사 ·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수기문 _돌보는 사람의 마음자세



문화예술 소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엔진 “신나는 예술여행”

박찬 _시인, 2005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추진단장

IMF가 가져온 중산층 해체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화돼 서민경제는 성장과는
달리 오히려 더 소외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사회가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소외는 경제 소외와 달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지만 외부의 도움이 없거나 주변 여건의 미비 등으로 애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사회에는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층,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산간벽지 오지 및 도서지역 주민과 학생,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양로원, 장애우, 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수용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북한이탈 주민)등이 바로 그들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사업 중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바로 이처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의 지원으로 2004년 7월 4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9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문화예술위원회가 그동안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향수지원 차원에서 실시해오던 ‘찾아가는’ (순회) 방식 외에 ‘모셔오는’ (초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향



수 지원사업으로 탈바꿈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찾아가는’ 방식이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고압인력이나 장비 이동상의 문제로 예술적 수준이 저하되고 현장의 여건을 맞춰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려워 고비용 저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람이 예술을 찾아 떠나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찾아가는 예술’도 ‘신나는 순회’ ‘신나는 문화장터’ ‘사랑의 예술치료’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신나는 순회’는 지역적, 계층적으로 문화체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원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사업이다.

‘신나는 문화장터’는 문화공간 위주의 문화체험에서 탈피해 거리나 재래시장, 공원, 지하철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소박함 속에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또 ‘사랑의 예술치료’는 재소자들의 심리안정을 돕는 한편 이들의 재활과 자활을 위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문화예술참여, 예술체험 및 예술치료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또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나는 예술여행’이 사업 출범과 함께 새로 도입해 진행하고 있는 ‘모셔오’ 방식의 ‘신나는 초대’는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열기,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몸짓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아늑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예술적 휴식을 느껴볼 수 있도록 공연현장이나 전시공간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초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각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행사 및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의 주요 기획프로그램을 탐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의 인지도와 작품의 질이 높은 공연을 위주로 공연 주관단체가 기부한 초대권과 순회사업추진단이 구매한 티켓의 해당 인원만큼 문화소외계층을 전시, 공연현장으로 초청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문화 소외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문화소외계층의 공부방 및 생활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학 및 인문 도서를 지원하는 도서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이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가운데 문화향수권 차원의 각종 복지사업이 있었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한정된 기금 탓이었다. 때문에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추진

단이 진행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말 그대로 ‘신나는’, 획기적인 문화복지사업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는 ‘니눔’, ‘복지’ ‘삶의 질’이다. 사회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때로는 한 끼의 맛있는 식사보다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해주는 것, 한 편의 좋은 문학작품, 한 폭의 좋은 그림, 한 편의 좋은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들은 때로 우리의 가슴을 기쁨으로 넘치게 해준다. 우리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준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예술의 향기가 사치스럽게만 느껴지는 이웃들이 많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일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나 외롭기만 한 아이, 고단한 노동에 지친 우리네 아버지들, 황혼의 어스름이 쓸쓸한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 극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우들, 공간이 없어 아예 문화예술을 접하지도 못하는 산간벽지 오지 도서 주민 및 청소년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삶에 위안을 주고 기쁨으로 넘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못지않게 중요한 문화복지일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다. 문화복지는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여주는 첩경이다. 국가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 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수준에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가고 있긴 하지만 세계 제9위 무역대국이라는 ‘부자나라’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



광주 전 · 남북 지역 박물관 · 미술관 공동 프로그램 _시범지원사업



참여박물관
미술관의 휘장과
사업추진
야외 본부

본 사업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광주 · 전남 · 북지역 박물관, 미술관 5곳(남포문화예술원, 아천미술관, 우제길미술관, 원불교역사박물관, 의재미술관)의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행사의 주된 장(場)은 소록도이고 자원봉사자, 작가와 인턴, 한센병 환우(환우는, 요즘 장애자라는 용어가 좋지 못한 어감으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준다하여 '장애우'라고 부르는 맥락으로 환자를 '환우'로 부르고 있는 추세입니다.)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 및 행사이다. 또한 소록도의 근황 및 참여자들의 활동상을 작품전과 사진전을 통하여 순회 전시함으로써 한센병 환우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견을 해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호남지역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공익성을 추구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작가들 또한 장애우나 타인의 환경상

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의 다변화와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와 다른 참여자들 또한 한센병 환우들과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상호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며, 사회의 모든 이들이 귀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 대화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 참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소록도에서는 771명의 한센병 환우들이 진료를 받으

며 거주하고 있으며 거동이 가능한 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령기에 접어든 탓으로 젊거나 어린 한센병 환자는 거의 없다. 100여만 평이 넘는 이 섬에는 200여명의 직원들이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녀(초등학교, 유치원)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을 지닌 섬에 작가, 자원봉사자, 보조원 등이 방문하여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한센병 환우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체험과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이에 관련한 자료 사진전과 결과물 전시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1차 현장프로그램은 45명의 미술가들이 한센병 환우들과 소록도 주민들을 위해 벽화, 도예, 구슬공예, 목조이자 제작, 사진 촬영, 설치작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환우들과 소록도를 찾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국립소록도병원을 비롯한 광주 MBC, (사)한국박물관협회, 광주일보와 기타 여러 단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따가운 땀약별과 소나기가 오가는 삼복의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1차 프로그램 참여 작가와 미술교사 단체, 그리고 20여명의 청소년이 주요 봉사자로 참여했던 국립소록도병원 2차 현장프로그램은 본래 1차 현장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보완하기 위한 일정이었으나 소록도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자 도색작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평소 낱아서 쓰기 힘들었던 목조벤치 50여개를 참여 작가들과 청소년 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보수 도색 작업을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기존의 미술관 기획에서 벗어나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금 재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특성이 상이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사회봉사 성격을 지닌 행사를 통하여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라였고, 더 나아가 미술문화의 다양한 역할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미약하나마 사회소외계층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순회 전시를 통하여 지역 간의 이해와 상호 교감을 넓히는 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술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본다. 😊

도예체험



기념품 디자인 전시



비즈공예 시범



오방색 나무 채색제작 현장



“강릉시민들이 만든 타일벽화 구경오세요”

강릉 문화의집에서
2005년 5월부터 강릉 시민 9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일아트 프로젝트
‘Free×901’이 완성되었다.

복권기금 지원으로 진행된 ‘Free×901’ 프로젝트는 강릉시민 901명이 참여해 10×10cm 크기의 타일에 자유로운 주제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 벽화로 만든 시민공동작품이다. 시민들의 손으로 만든 타일벽화는 강릉 문화의집 전면에 부착되어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자부심을 제공하고 있다.

‘Free×901’ 프로젝트에는 3살 어린이부터 80살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강릉 문화의집의 또 다른 자랑거리인 ‘문화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문화 활동 영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6개월간의 작업 끝에 10월 25일 제막식에는 심기섭 강릉시장, 동네주민대표 권수빈(5)양, 문화의집 이용자 정남교, 최다 문화자원봉사자 황옥구씨 등이 참여했으며 사이버갤러리, 타일벽화 프로젝트 동영상 상영, 강릉문화의집 기타동아리 ‘통울림’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권수빈양은 “처음에는 그림을 그릴 때 쑥스러웠지만 벽에 장식된 제 그림을 보니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문란 강릉문화의집 실장은 “진정한 지역문화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완성되고 가꿔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타일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2006년에는 단오와 전통문화 등을 주제로 타일아트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치매·중풍노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가장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없거나 불완전 취업 상태의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탈빈곤을 촉진하는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06년도에는 6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만3천명 가량이 지원을 받는 규모이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대상자 선정·조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실제소득 산정방식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출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출
- 가구원 중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및 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비, 추정소득 적용 제외
- 신청인의 재산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 실제소득은 수급자 소득평가액 내용과 다름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및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200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실제소득산정 방식 적용

2006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100%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최저생계비150%	627,463	1,051,273	1,409,773	1,755,633	2,029,863	2,313,573

신청조사

- 사업참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
- 조사내용 : 참여자 및 가구원의 월평균 실제소득 파악
- 조사방법 : 200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실제소득조사방법 적용

확인조사

- 시·군·구청장은 참여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기간중에 1회 이상 조사수행(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절차 : 희망자 → 읍·면·동(또는 후견기관) 신청 →

시군구 선정 → 사업실시기관

- 읍·면·동 및 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 접수, 시·군·구는 규모감안 참여대상자 선정
- 신청인원이 계획인원 초과 시, 시·도와 협의후 인근 시·군·구 참여조치
- 동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만 참여 가능
- ※ 수급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동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 ☺



부산의료원 치매병동에서 아침식사를 거드는 복지 간병사

돌보는 사람의 마음자세

장영자 _강서방화자활후견기관 간병사

가사간병도우미는 가정이나 병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 외부활동 시 동행하거나 목욕, 대소변수발 등의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불편한 부분을 느끼지 않게 도움을 제공하려면 대상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려면 더욱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중풍에 걸린 강정자 할머니에게 황인덕 간병사는 가족 이상의 친근한 존재이다

기초교육에서는 시트가는 방법, 환자를 이동할 때 휠체어 태우기, L-tube, suction 최대조절법, 대소변 수발할 때 기저귀, 유린백 사용법 등의 가사간병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이는 가사간병인은 물론 환자나 노인에게 힘이 적게 들며, 무리없이 도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문교육과정에서는 간병인은 사명감과 당당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공인이 되어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강사님들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다양한 노인성 질환 및 우울증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건강관리, 영양식, 정서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 수혜자를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이해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였다.

호스피스 교육에서는 고통을 덜어주거나 위안을 주어 편안하게 임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호스피스의 개념을 알았고, 태어날 때는 축복 받지만 죽을 때는 슬픔이 따르며, 죽음이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호스피스는 치유의 개념보다는 돌보는 차원의 기술이고,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이해시키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간호로서 간병인은 친절과 품위 있는 태도, 희망을 주는 대화를 나눠주며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는 등 통증관리는 물론 신체적 돌봄의 역할자로서의 중요한 임무가 있음을 알았다.

교육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인내심, 사랑과 봉사하는 정신, 연민의 정을 가진 가사간병사의 마음자세와 인격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손과 발이 되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요구하기 전에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교육들은 가사간병 활동을 하는데 있어 내 몸이 활동할 수 있는 한 외로운 분들과 함께 그 분들의 건강과 생활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확고하게 다지는데 자극이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였다. 가사간병활동은 내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

출처 중앙 가사·간병교육센터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선진 복권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손방 _복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

본 연수는 선진국의 복권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복권위원회의
복권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촉박한 일정과
연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정 수립 및 사전 기관방문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현지 기관방문을
통해서는 짧은 시간 속에 통역을 통한 제도와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선진 복권제도를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귀국하겠다는 의지로 사전 수립된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연수단 전원이 몸 건강히
연수일정을 마쳤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번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연수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와 목적
은 프랑스의 경우 전체 복권시장 판매규모가 2004년 현재 149,757백만¹로 세
계 3위이고, 로또복권이나 즉석복권 또한 판매액이 세계 5위안에 위치하는 등
세계복권시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전자복권
판매비중이 2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양국 모두 벤치마킹할 요소
들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에서의 일정은 크게 복권판매소 방문과 복권발행기관인 FDJ 방문으로
나뉘어졌다.

대부분의 복권판매소에서는 담배를 같이 판매하고 있었다. Tabak이라 쓰인 간판 옆에는 항상 복권발행기관인 FDJ의 로고가 있
었다. 복권판매소를 방문하였을 때 느낀 점은 복권판매소의 내외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복권발행 기관의 복권 안내포스터 및 현수막으로 인해 조금은 혼잡하고 정리되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받지만, 프랑스의 경우 하나의 복권발행기관에서 모든 복권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통합된 안내 포스터를 게재함으로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또한 복권발행기관 FDJ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복권판매소 안내판은 멀리서도 한눈에 복권 판매점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성실히 해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복권위원회의 로고가 결정되어 이와 같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일정에 따라 프랑스의 복권발행기관인 FDJ(La Française des Jeux)를 공식 방문하였다. Silva 라는 직원이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FDJ는 1978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일한 공식 복권발행기관이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성인인구의 64%에 달하는 29백만명 정도가 복권을 즐기고 있으며, 이중 33%는 정기적인 복권구매자로 적어도 1주일에 한번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복권시장을 갖고 있었다. 특히 모든 선진국들이 그러하듯이 프랑스 역시 대부분의 모든 복권들이 균등한 분포를 보이며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향후 국내 복권시장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이라 하겠다.

또한 모든 복권이 바코드로 관리되고 있어, 판매소에서 판매된 복권의 양과 판매액이 정확히 집계되고, 판매액은 당첨금, 수수료로 제외하고 판매인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복권은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미국에서 제조하고, 업체는 연단위로 입찰을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프랑스내 복권의 배송 또한 연단위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등 핵심사항이 아닌 업무는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었다.

전자복권의 경우 www.fdjeux.net을 통해서 프랑스 국민 및 프랑스령 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판매되고 있었으며, 사이트 가입자 수는 2004년 12월말 현재 344,233명으로 국내시장에 비하면 매우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처음 전자복권을 도입한 이후 매년 전년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복권 시장이 로또복권에 의해 그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하겠다.

이후 우리는 유럽 복권시장 중 전자복권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다른 유럽의 경우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오스트리아는 28% 라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망의 보급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잘되어 있는 편이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복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www.win2day.at 이라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복권사이트를 통해서만 전자복권을 판매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청소년의 복권구매 및 과도한 복권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전자복권의 특징은 평균당첨금 지급율이 오프라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모든 복권(온라인 복권, 인쇄식복권, 전자복권 등)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복권이 하나의 회사 또는 법인체를 통하여 발행·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연합복권 발행 및 수탁기관과 복권위원회간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EU 국가간의 통합 복권인 Euro Millions의 발행은 수탁사업자간의 연합복권 발행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벤치마킹할 대상이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당첨금 지급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든 복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복권의 가격·종류에 따라 차별을 두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복권의 활성화에 또한 기여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복권종류마다 유사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복권종류마다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의 종류가 너무 과다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정비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인쇄식 복권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자복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전자복권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정보통신망 기술 또한 우리나라가 우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복권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짧은 일정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오지는 못하였지만, 매우 유익한 일정이었으며, 우리가 배워 온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권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



복권구매자의 구매행동 분석을 통한 복권 사행성 역진성 연구 I

본 조사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성인남녀 1,309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다.

※ 조사표본은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신뢰수준 95%(표본오차 ±2.7포인트)임.

(조사기간 : 2005. 9. 22~10. 10, 조사기관 :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대해 이번 호에는 복권의 사행성에 대하여, 이어서 다음호에는 역진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 복권 및 타 사행게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다음 중 도박성과 사행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 분	카지노	경 마	복 권	화 투	주 식	스포츠 토토	기 타
단수응답	55.0%	33.0%	5.3%	3.3%	3.1%	0.3%	0%
복수응답	86.4%	78.0%	11.0%	13.3%	9.2%	0.9%	0.7%

- 단수 응답의 경우 카지노 → 경마 → 복권 → 화투 → 주식 순으로 사행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 복수 응답의 경우 카지노 → 경마 → 화투 → 복권 → 주식 순으로 사행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 그러나 복권이 가지는 사행성의 크기에 대하여는 카지노 및 경마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복권의 사행성은 주식과 비슷하다고 인식함.

나. 복권 및 타 사행게임에 대한 연령대별 반응 *복수 응답의 경우

구 분	카지노	경 마	복 권	화 투	주 식	스포츠 토토	기 타
합 계	86.4%	78.08%	13.3%	11.0%	9.2%	0.9%	0.7%
20대	86.1%	74.8%	11.8%	15.3%	10.2%	0.3%	1.2%
30대	86.9%	76.2%	12.2%	11.3%	10.5%	1.9%	0.6%
40대	86.6%	81.5%	13.2%	8.1%	10.1%	0.3%	0.0%
50대	86.9%	84.8%	13.1%	8.1%	5.0%	0.8%	0.7%
60대	85.6%	76.0%	18.7%	9.6%	6.9%	1.2%	0.6%

- 카지노와 경마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사행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 화투에 대하여는 노년층 일수록 사행성이 높다고 인식하며, 복권에 대하여는 젊은층 일수록 사행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



사행성(射幸性)에 대한 소고

정성환 _ 복권위원회 사무처 과장

사행심은 우연한 이익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란 뜻으로, 무턱대고 화살을 날려 과녁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궁술 사(射)를 붙였다. 의외로 좋은 결과를 바란다는 뜻이다(이상은 엠파스 열린지식에 나온 내용)

복권은 소비재인 동시에 정부 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소비재로서의 복권은 보험이라는 상품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위험을 회피(risk-averse)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보험상품 구매는 타당성이 있으나 복권 구매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사는 즉시 기댓값이 구매액의 50%로 떨어지는 상품으로 소비자들은 불평등게임인 사실을 알면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이는 복권 구매로부터 소비자들이 효용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효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권에 소액을 투자해서 거액을 벌려는 투자재 특성도 있지만, 영화관에 가서 즐기는 것처럼 복권이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소비재의 특성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번호를 고르면서 어제밤 꿈, 오늘의 운세, 최근에 자주 나온 번호 등을 고려하며 가족, 동료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구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위험 중립적(risk-neutral)인 소비자라면 1,000원을 주고 복권을 구입하지만 50%는 상금으로 되돌아오므로 사실상 가격은 500원으로 볼 수 있다.

즉 복권을 구입해서 즐기는 효용의 가치가 500원 보다 더 큰 사람만이 복권을 구입할 것이며 지난주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월상금으로 인하여 1,000원에 복권을 구입시 상금으로 되돌아 올 비중이 50%가 넘으므로 실질적인 복권의 구입가격은 500원 미만인 것이다. 결국 복권의 사행심은 1,000원을 주고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 want it』

1963년 미국 뉴햄프셔의 킹(John W.King)주지사가 복권발행을 제안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다.

국민의 도박 특히 복권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이고 뿌리깊은 것이며 도덕적인 이유로 이를 근절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복권의 역사는 국민 사이의 도박에 대한 욕구를 신기술과 결합시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권의 사행성에 대한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도 복권 자체의 사행성만을 논할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사행성이 낮은 복권산업을 통하여 중독성과 사행성이 강한 여타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책적 대안과 함께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의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2005~2006 전국사립박물관·미술관 제주 워크숍

일정 : 2006. 2. 5(일) ~ 6(월)

주최 :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후원 : 복권기금지원사업



복권기금, 사립박물관 활성화에 기여

_제주일보 2006. 2. 7

지난해 처음 실시된 “복권기금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열악한 사립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가 5일 서귀포시 트레블러스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워크숍에서 2005년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사립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가단은 총평을 통해 “기간시설 등에 대한 입체적 지원 개시로 사립박물관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 대국민 문화예술 지원서비스, 사이버 전시 지원, 기획력 행정능력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장애 학생 편의시설에 복권수익금 180억 첫 지원

_중앙일보 2006. 2. 13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로부터 올해 복권기금 공익사업 지원예산(7,830억원) 중 180억원을 배당받았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950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권수익 52억 바탕 문학 향수증 확대

_한겨레 2006. 2. 21

복권기금 52억여 원을 문학도서 활성화와 문화소의 해소에 활용하기 위한 '2006 문학나눔 사업' 내용이 공개되었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학 지원 사업은 지난해 '문학회생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바 있다.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문예지계재우수작품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구입배포사업 등으로 나누어 시행된 지난해 사업 결과 신진 문인들의 첫 작품집 발간이 크게 늘었고 출판사들의 문학책 출간 역시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추진위는 기존의 사업 내용 중 창작지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넘기고 추진위는 문학향수 기회를 늘리고 문화소외를 해소하는 데에 사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지난해의 '문학회생프로그램추진위원회'에서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로 바꾸고 문학평론가 도정일 교수(경희대)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도정일 위원장은 "복권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 지원에 쓰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복권기금을 이용한 기존의 창작지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쪽으로 넘기고 복권기금은 문학향수의 전반적 확대 쪽으로 쓰이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특별전시회

_강원일보 2006. 3. 11



2005년도 문화관광부에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정선아리랑 학교 추억의 박물관을 조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 지난 한해 동안 3만 7천여명이 다녀가는 등 폐광지역 문화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딱지의 추억-대한민국 딱지가 다 모였다" 특별전시회가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어린시절 추억의 놀이 대상인 딱지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여는 전시회로 계급장 네모 딱지, 196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영웅담과 만화영화 주제 동그란 딱지 등 어린시절 추억을 함께한 딱지들이 선보인다.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를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 특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폐교는 현재 교육·복지시설로 활용될 때에만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복권기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그동안 폐교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경우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 및 매각으로 민원이 발생했었다”며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 인센티브정책 활용을

_서울신문 2006. 3. 28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만 6,950개 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우선에서 벗어나 잘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직업생활상담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우선지원토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초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보다 4배 많은 82억원을 투입 2,7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고용협약’에 13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사업주들이 의무고용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흐뭇한 기부자

- 로또 14회차 9.375백만원 당첨자인 인천의 L모씨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억원,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으로 5억원, 총 10억원을 기부하였다.
- 로또 10회차 2등 당첨자인 울산의 40대 회사원은 제세금을 제외한 31,834,800원 중 10,000,000원은 자신이 당첨되면 준다고 약속한 직장동료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금액인 21,834,900원을 뇌척수염을 앓고 있는 K양에게 전해주었다.
- 프로축구의 K선수는 로또 제10회차 3등 당첨금에서 세금을 제한 총 66만원에 34만원을 보탠 100만원을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으로 기부했다.

로또복권 당첨자 중 최고액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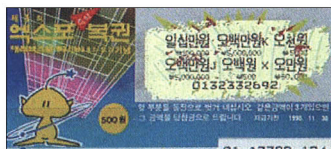
로또 19회차 1등 40,722백만원의 당첨자는 경찰관 자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희망장학회에 10억원, 춘천과 홍천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억원을 기탁했다. 또, 당첨자 자신의 자녀들이 다녔던 춘천 모 초등학교에도 2억원의 장학금을 내놓아 총 32억원을 기부하였다.

특이한 당첨기록

- 서울의 K모씨는 10회차 3등 당첨후 11회차 1등 47억원 당첨
- 로또 14회차 1등 93억원 당첨자는 1등과 3등 4개가 한꺼번에 당첨
- 로또 15회차 1등 170억원 당첨자는 7살된 딸아이에게 제비뽑기로 번호를 선택해 당첨
- 로또 26회차 2등 74백만원 당첨자는 5게임 모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2등 2게임, 3등 2게임, 4등 1게임 당첨)
세금을 제한 총 66만원에 34만원을 보탠 100만원을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으로 기부했다.

우리나라 복권의 유래 및 변천사

우리나라 전통적인 복권의 기원은 근대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크게 발달한 친목도모와 서로 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실시된 일종의 민간협동체인 ‘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에 볼 수 있었던 ‘산통계’나 ‘작백계’가 바로 그것인데, 산통계는 통이나 상자 속에 각 계원의 이름을 기입한 알을 투입한 후 그 통을 돌리다가 나오는 알에 의하여 당첨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며, 작백계는 ‘천인계’ 또는 ‘만인계’라고도 일컬어지던 것으로 일정번호를 붙인 표를 100명(작백계), 1,000명(천인계) 혹은 10,000(만인계)등 일정한 단위로 팔고 추첨을 하여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을 복채금으로 돌려 주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내나

5만원이 넘는 당첨금만 세금을 낸다.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를 하면 세금문제는 완결된다. 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한다. 서울은 복권당첨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5억원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로또복권을 구입해서 30억원에 당첨되었다면,

- 과세대상은 구입액 1천원을 제외한 2,999,999,000원이며
- 5억원까지 기타소득세(20%) 100,000,000원, 주민세(2%) 10,00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2,499,999,000원에 대해
기타소득세(30%) 749,999,700원, 주민세(3%) 74,999,9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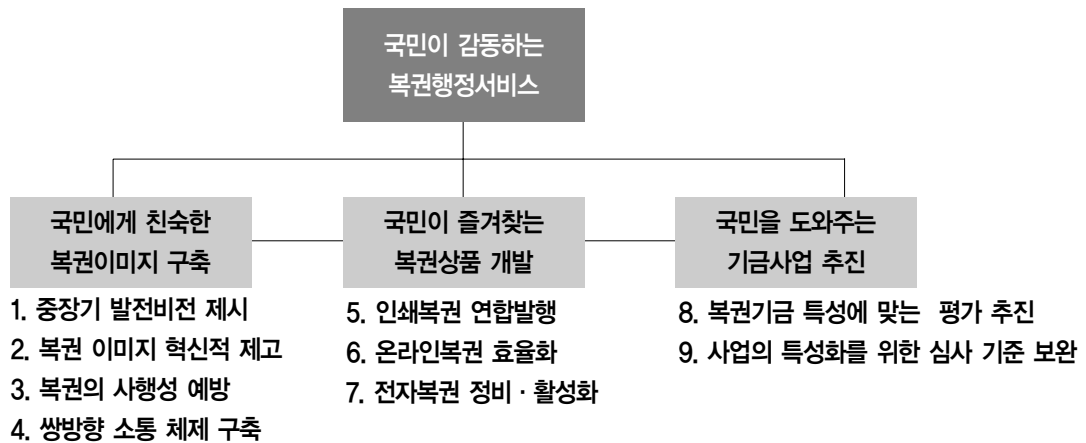
30억원에서 세금 934,999,670원을 공제한 2,065,000,330원을 수령한다.

당첨금을 찾지 않으면 판매종료일 또는 당첨금지급개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복권당첨금의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복권기금으로 모두 취소된다.

당첨된
복권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민과 함께하는 복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변하고 있습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복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올해를 “국민이 감동하는 복권행정 서비스의 해”로 정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표 참조〉 각 과제별로 실천동아리를 구성하고 월 2회이상 동아리별 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직원들의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권법 연구동아리”를 결성하여 특정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심화학습활동을 통해 문제해결형 학습조직으로 거듭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OPC 아카데미란?

■국무조정실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참여형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OPC아카데미」를 개설, 학습자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수강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 사례중심의 토론·경험하는 방식(Action Learning)으로 진행되며, 교육기간(2006년 4월 1일~2007년 3월 31일) 동안 필수 6학점, 선택 6학점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직급별 리더십 역량강화 1과목, 직무전문분야 1과목 등 필수 2과목을 비롯하여 조직혁신역량·직무공통·전문지식역량부문 32개 과정 중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



이른봄 월간복권 발간준비를 위하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관련부처 및 복권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일이라면 알차고 충실한 내용으로 채우려는 욕심으로 점심 시간을 쪼개서 원고를 교정해준 사무처 직원... 때론 고료 없는 원고 작업에 밤을 밝혔을 관련부처의 담당자 분들의 모습도 눈앞에 선합니다.

다 만들고 보니 문장도 조금 어색하고 인터뷰가 충분치 않아 현장감도 떨어져 보이지만 다음호를 더욱 알차게 꾸려보겠다는 약속으로 미흡함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QUIZ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 소외지역 해결을 위한 '신나는 예술여행'과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 편집부(E-mail(suh78@hanmail.net) 또는 우편엽서(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605호 복권위원회)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발행일 2006년 4월 14일 통권1호 _월간 비매품

발행인 겸 편집인 복권위원회 사무처 편집부 _허신욱·최경하·박효건·강은아·김효훈·박백봉·신영진·민자영·이수현

편집 디자인 디자인랩 _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3단지 오피스텔 612호 _739-9957

발행소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사무처 _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605호